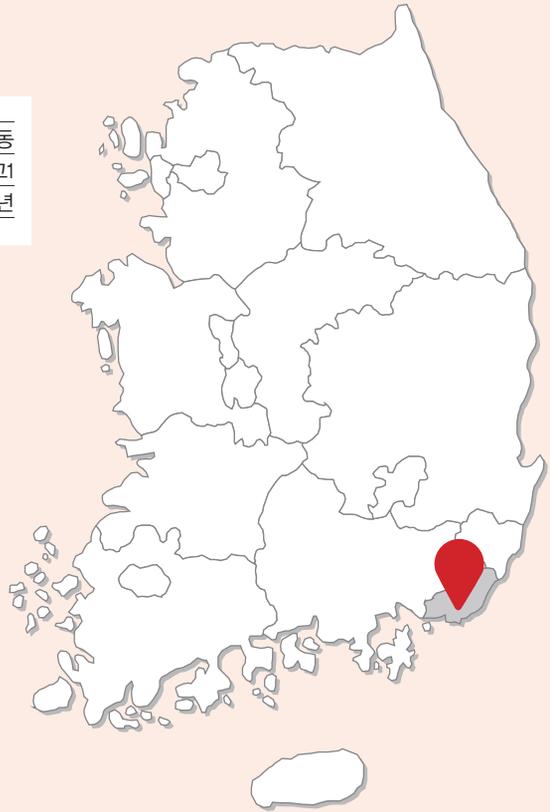


“치열한 내신 경쟁 어떻게 대처할지 고민이에요”

거주	부산시 남구 용호동
자녀	고1
구독 기간	1년



독자에게
물었다

취재 김원모 리포터 kasciner@naeil.com

〈내일교육〉은 어떻게 구독하게 됐나요?

아이의 고교 입학을 앞두고 이런저런 고민이 많았는데 지인이 추천하더라고요. 꾸준히 읽다 보면 여러 입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요. 정기 구독을 해보니 그때그때 바뀌는 교육 정보를 알 수 있어서 유용했어요.

〈내일교육〉을 어떻게 활용하나요?

일단 잡지가 도착하면 바로 펼쳐서 쪽 훑어봐요. 저보다 아이에게 도움이 될 기사도 많아서 학생부 활동과 관련된 기사나 과목별 참고 도서 등은 언제라도 참고할 수 있도록 매호마다 포스트잇으로 표시해둬요.

요즘 자녀 교육과 관련한 고민은 뭔가요?

우리 아이는 수시전형으로 약대에 진학하는 게 목표인데 매 학기마다 치열한 내신 경쟁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누구는 탐구 활동도 한 분야만 파고드는 것보다 다양한 관심사를 드러내는 게 좋다고 하고 누구는 아니라고 하고. 대체 어떤 방향이 맞는지 혼란스러워요. 내신 성적에 따라 진로가 달라질 수도 있는 게 현실인데,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도 궁금하고요.

〈내일교육〉에서 다뤘으면 하는 기사는 무엇인가요?

아이가 현 대입 제도의 마지막 세대이고 다음 학년부터는 완전히 바뀌잖아요. 만약 재수라도 하면 어떤 유불리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관련 기사를 열심히 읽어보는데 여러 전문가도 아직 이렇다 할 답을 내리지 못하는 것 같아 걱정만 쌓여요. 〈내일교육〉에서 변하는 대입 제도에 따른 입시 현황을 잘 빠르게 다룬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Reporter's A/S

올해 고부터는 내신 신출 방식과 교과목 구조가 크게 달라지는 고교학점제가 적용됩니다. 이들이 치를 2028학년 수능도 크게 달라지면서 각 대학의 대입 전형도 바뀔 예정입니다. 여러 대학 중 처음으로 2028학년 대입 전형 계획을 밝힌 서울대 기사를 참고해 향후 대입 방향을 가능해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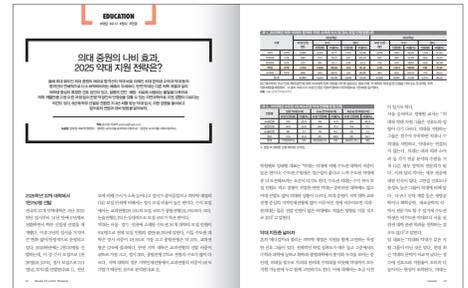


본지 1164호
'이슈 체크 | 서울대 2028 대입 전형안' 기사 참조



인터뷰에 응해주신분께는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내일교육〉 편집부입니다." 어느 날 불췌 전화를 받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평소 느꼈던 아쉬움이나 칭찬하고 싶은 내용을 솔직하게 전해주세요.

독자가 뽑은 베스트 기사



의대 증원의 나비 효과, 2025 약대 지원 전략은?

"아이가 약대 진학이 목표라 약대 관련 기사는 무척 꼼꼼하게 보고 있어요. 의약학 계열 전체가 아닌, 약대만의 특징과 전반적인 지원 경향 등을 구체적으로 다뤄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2025 수시 합격생 릴레이 인터뷰 1 | 고려대 자유전공학부 입학 예정 권경민 생명과학·〈정치와 법〉에 꽂힌 '생태계 교란종'의 선택, 자유전공

"수시 합격생 인터뷰는 탐구 활동이나 내신 관리 등 합격생의 구체적인 경험이 학부모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성적이나 여러 상황에 따라 희망 진로를 바꿔야 했던 학생의 이야기도 소개해주면 좋겠습니다."